

민 정 실	음 진 천
-------------	-------------

BUDDHANARA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 기도 법회 (11 월), 동지 기도 (12 월)

넷째주 일요일 11시 반야심경 사경법회 (11 월), 108 대참회 법회 법회 (12 월)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 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누가 이 세상 정복할까?

누가 천상 세계 정복 할까?

누가 죽음, 고통의 신(神), 야마 세계 정복할까?

꽃을 찾아 나선 사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발견 하듯

지혜완성 이르는 길(Dhamma Pada)

누가 발견할까?

Who shall conquer this world and the world of the gods, and also the world of Yama, of death and of pain? Who shall find the DHAMMAPADA, the clear Path of Perfection, even as a man who seeks flowers finds the most beautiful flower?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6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전도된 상태와 극단을 떠난 올바른 실천행”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연기(緣起)’고, 무상.무아는 사상체계며, 사성제는 실천체계에 해당된다. 그러면 ‘중도(中道)’는 무엇일까. 바라나시 근교 녹야원에서 큰단나 등 다섯 비구를 상대로 첫 설법을 할 때 부처님은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원만히 잘 깨달았다”고 선언했다. 소위 말하는 ‘중도 대선언’을 한 것이다. 중도란 무엇일까. 바라나시 근교 녹야원에서 설법하던 당시로 돌아가 보자.

〈마하박가〉(1:7)에 당시 부처님이 외친 원음(原音)이 담겨있다. “비구들아, 두 가지 극단이 있으니 출가자들은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하나는 여러 가지 애욕에 빠져 그것을 즐기는 것이니, 그것은 열등하고 세속적이고 범부의 짓이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 되는 바가 없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짓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니, 그것도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 되는 바가 없다.

비구들아, 여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원만히 잘 깨달았다. 중도는 눈을 뜨게 하고 앓을 일으킨다. 그리고 고요함과 수승(殊勝)한 앓과 바른 깨달음과 열반에 도움을 준다. 그러면 비구들아, 여래가 원만히 잘 깨달았고, 눈을 뜨게 하고 앓을 일으키고, 고요하고 수승한 앓과 바른 깨달음과 열반에 도움이 되는 중도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여덟 가지 성스러운 길’(八正道)을 말하는 것이니, 정견(正見).정사유(正思惟).정어(正語).정업(正業).정명(正命).정정진(正精進).정념(正念).정정(正定)이다. 비구들아, 이것이 여래가 원만히 잘 깨달았고 열반에 도움이 되는 중도이다.”

〈마하박가〉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중도는 바른 깨달음과 열반에 도움을 주는 데, 그것은 바로 팔정도다. 때문에 팔정도의 내용을 분석하면 중도의 실체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의 불교학자 마스타니 후미오(増谷文雄)에 따르면 팔정도는 네 가지로 구분된다. 바르게 보는 것(정견), 바른 행위(정사.정어.정업), 바른 생활(정명), 바른 수행(정정진.정정)이 그것이다.

여덟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굳이 가장 중요한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택해야 할까. 그것은 ‘정견’이다. 올바르게 보고 정확하게 보아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정견을 ‘팔정도의 기체(基體)’라 부르기도 한다. 사실 바른 견해를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의 가르침에 입각해 극단적인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시각과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정견이다. 인생에서도 올바른 시각과 관점을 세우는 것은 일생 전체의 향방을 가름할 만큼 중요한 일이다. 누구나 보편타당한 관점을 세우고 싶어 하지만, 어느 새 한편으로 치우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욕망, 이해관계, 인연 등으로 자기도 모르게 정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연기의 이법(理法)에 바탕을 둔 제행무상, 제법무아를 철견(徹見)할 때 정견은 이뤄진다.

그러면 팔정도의 ‘정(正)’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네 가지 잘못’(四顛倒)에서 벗어난 것을 정이라 한다. 사람들은 흔히 무상한 존재를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자기도 늙어 가면서도 자기는 항상 젊다고 생각한다. 이를 ‘상(常)전도’라 한다. 괴로움으로 보아야 할 인생을 즐거운 것으로 잘못 본다. 이것이 ‘낙(樂)전도’다. 세 번째는 부정(不淨)한 인간을 깨끗한 것인 듯 잘못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淨)전도’다. 마지막으로 무아인 것을 마치 실체가 있는 ‘영원한 아(我)’인양 착각한다. 이것이 ‘아(我)전도’다. 이런 네 가지 전도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불교에서는 ‘정(正)’이라 한다. 요약하면 고(苦)의 발생, 고의 소멸, 고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정이다.

네 가지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극단을 떠나는 것’과 통한다. ‘가를 떠나 한 가운데 서는 것’(離邊處中)이 바로 정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출가자는 두 극단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극단은 팔리어로 ‘anta’인데, 한역 경전에서는 편(偏), 변(邊), 단(端)으로 번역됐다. 부처님 자신도 한 때 극단주의자였다. 철저한 고행, 아니 지나친 고행으로 피골이 상접해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 했다. 고행을 포기하고 중도를 원만히 잘 깨달았다.

극단을 떠난다는 것은 곧 ‘망령됨’을 버리는 것과 통한다. 허망한 견해를 망견(妄見)이라 하는데, 망견을 떠나는 것이 바로 정이다. 잔잔한 사람의 마음도 탐욕, 어리석음, 성냄에 의해 어지러워지고, 흐려진다. 망견은 이럴 때 나타난다. 여실하고 명석하게 사물과 존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지 못한다.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주제와 객체 사이에 무엇인가 끼이는 것을 ‘애(碍, 장애가 되는 것)’라고 한다. ‘애’를 떠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여실지견(如實知見)’이라 한다. 말이 쉬워 그렇지 여실지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탐욕, 어리석음, 성냄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허망한 분별은 ‘애’가 낫을 때 생겨난다. 그래서 <유마경> ‘관중생품’에 “허망한 분별은 무엇이 근본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전도망상(顛倒妄想)이 근본이 된다”고 답하는 구절이 있다.

정과 관련해 주목되는 경전이 <앙굿따라니까야> (6:55)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소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목숨을 걸고 수행해도 아라한과를 증득하지 못했다. 잡념들이 그를 괴롭혔다. 수행이 하도 안돼 자살하고 싶을 정도였다.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이 소나를 찾았다. “너는 집에 있을 때 무슨 일을 잘했느냐?” “부처님이시여, 거문고를 조금 탈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나여, 거문고 줄을 아주 팽팽하게 죄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이시여, 너무 팽팽하면 소리가 잘 나지 않고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나여, 거문고 줄을 아주 느슨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이시여, 그렇게 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대화 끝에 부처님이 말했다. “소나여, 너의 말 대로다. 거문고 줄이 너무 팽팽하거나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수행도 그와 같으니라. 쾌락에 빠지는 일이나 고행을 일삼는 것은 다 바른 태도가 아니다. 또 지나치게 서둔다면 고요한 심경을 기대할 수 없고, 너무 긴장을 풀면 게을러지기 쉽다. 소나여, 너는 그 중간을 취하도록 하라.” 여기서도 부처님은 극단을 떠날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줄이 지나치게 팽팽하거나, 지나치게 느슨하면 거문고 소리가 나지 않듯이 수행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물론 이를 ‘적당한 중간’, ‘어중간한 가운데’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상황논리(狀況論理)가 아닌,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실천행이 바로 중도다. 거문고 줄이 ‘적당해야’ 소리가 난다는 것을 잘못 이해해 ‘적당한 처세’를 중도로 여겨서는 곤란하다. 중도는 아라비아 숫자 1 과 10 의 중간이 5 인 것처럼 산술평균적인 중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선과 악이 싸울 때 중도를 취한다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은 중도를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주어진 여건을 극복해 나갈 ‘적절한 실천행’이 중도행이다.

그래서 중도의 밑바탕에는 연기, 아니 중도가 바로 연기인 것이다. 중도행은 연기법을 체득한 사람이 하는 실천행이기 때문이다. 연기가 ‘체(體)’라면 중도는 ‘용(用)’이라고나 할까. 체와 용을 구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체가 곧 용이고, 용이 곧 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말을 할 때 목만 있으면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다. 혀와 이빨, 그리고 신체가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건강해야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난다. 목 하나만으로는 절대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되며/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어지며/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지는”(쌍숫따니까야 12:3:21) 연기가 중도라는 것이다.

팔정도가 중도의 근간이라면 중도는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일까, 아니면 중도가 바로 깨달음 자체인 목적론 혹은 ‘구경론(究竟論)’일까. ‘중도’와 관련해 생각해 볼 주제 가운데 하나다. <마하박가> (1:7)에서 부처님은 분명히

“여래는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원만히 잘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곤 “중도의 내용이 팔정도”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중도는 눈을 뜨게 하고 앓을 일으킨다. 그리고 고요함과 수승한 앓과 바른 깨달음과 열반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문맥상으로는 방법론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 목적론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마음만 바꾸면 악인도 선인

부처님이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밋지국에 사는 비사(毘沙)라는 악귀가 수없이 사람을 해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핑계로 하루에 한사람, 때로는 수십 명을 죽인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려고 하자 비사는 끝까지 쫓아가 제물을 잡아올 것이라고 겁을 주었다. 마을사람들은 비사와 협상을 했다. 하루에 한명씩 동굴로 보낼 테니 한꺼번에 여러 명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산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재산가인 선각장자가 외동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할 때가 됐다. 선각장자는 아들 나우라를 목욕시킨 뒤 귀신의 동굴로 데리고 갔다. 부모는 울면서 누군가 이 아이를 구해주기를 기도하고 돌아왔다. 이처럼 참혹한 사정을 알게 된 부처님은 나우라가 바쳐진 동굴을 찾아갔다. 부처님은 공포에 떠는 나우라를 안심시키고 보시(布施) 지계(持戒) 생천(生天)의 차제설법을 했다. 그는 곧 마음이 깨끗하고 법안이 청정해져서 삼보에 귀의한 불자가 되었다.

얼마 뒤 악귀가 돌아왔다. 뜻밖에도 부처님이 와계신 것을 안 악귀는 부처님을 해치고자 했으나 신력(神力)으로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악귀가 당황하자 부처님이 말씀했다.

“과거의 네가 지은 업이 현재의 너의 모습이다. 현재 네가 짓는 업이 미래의 네 모습이다. 그러나 그대가 이제부터 몸과 입과 생각으로 열 가지 나쁜 업을 짓지 않으면 과거의 나쁜 업이 사라질 것이다.”

“저는 지금 몹시 굶주렸습니다. 왜 저의 먹이를 빼앗으려고 하시는지요?”

“나는 과거에 보살도를 닦을 때 비둘기를 살리기 위해 내 몸을 내준 바 있다. 그런데 어찌 이 아이의 목숨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악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 자리에서 출가했다. 악귀는 사문이 되어 마을로 내려가 부처님의 제자가 됐음을 알리고, 사람들의 근심을 덜어주었다. 나우리의 아버지 선각장자는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초청해 공양을 올렸다. 장자는 부처님의 허락을 얻어 많은 음식과 평상과 침구와 의약품을 승단에 보시했다.

- <증일아함경> 14 권 고당품(高幢品) 제 2 경 -

앞의 이야기는 아이를 돌보는 여신인 귀자모신(鬼子母神) 이야기와 플롯이 비슷하다. <잡보장경> 9 권 ‘귀자모실자연’에 수록된 귀자모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옛날 왕사성 교외에 ‘환희(하리티)’라 불리는 야차녀가 있었다. 그녀는 많은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였다. 그러나 사된 마음을 품고 마을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어린아이를 빼앗아 산채로 잡아먹었다. 사람들은 야차녀를 두려워하여 귀자모(鬼子母)라 불렀다.

어느 날 이 사실이 부처님에게 알려졌다. 부처님은 방편으로 아난존자를 시켜 그녀의 막내아들인 애자(愛子)를 데려오게 했다. 남의 아이를 유괴하러 나갔다가 돌아온 그녀는 막내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밤낮으로 막내아들을 찾아 헤맸으나 허사였다. 그녀는 7 일간 성내를 헤매다가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녀는 ‘아들을 찾아주시면 다시는 남의 아이를 유괴해서 해치지 않겠으며, 삼귀오계(三歸五戒)를 받고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다. 부처님이 그녀의 마음을 바꾼 것을 알고 아이를 내주었다. 그 뒤 그녀는 정말로 귀자모가 아닌 애자모(愛子母)로 살아갔다.

의정(義淨)이 쓴 기행문 <남해기귀내법전>에 의하면 이후 귀자모는 인도의 여러 사원에서 어린이를 수호하는 신으로 모셔졌다고 한다.

- 불교신문 홍사성 -

안국선원 美 하버드대에 장학회 설립

안국선원장 수블스님은 지난 10월 31일 미동부승가회 스님들과 함께 하버드대학에서 한국불교학 연구생에게 지급될 장학회 ‘Ahnkook Endowment Fund For Buddhist Studies’(불교학 연구를 위한 안국장학회)에 서명했다. 안국선원은 전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지난해 약속한 장학금 지급에 대한 사안을, 현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위임장을 받아 1년 만에 이행하게 됐다. 안국장학회는 앞으로 5년간 1년에 10만불씩 기부금을 은행에 저금해, 그 이자로 한국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게 된다. 하버드 대학 내에는 모든 불교 국가가 장학재단을 설립 본국의 불교 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면 아직까지 한국불교학과 설립이 이루어 지지 않았었다.

서명식 자리에는 하버드 세계종교학회 소장이며 동남아시아 불교전공인 도날드 스웨어러(Donald Swearer) 교수, 하버드 신학대 총장 딘 그래햄(Dean Graham) 교수 등 하버드대학 교수 10여명과 안국선원장 수블스님, 철오스님, 진수스님, 선산스님 그리고 미동부승가회 소속 휘광스님, 서천스님 등이 참석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10명의 관계 교수들이 서명식에 참석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서명식에서 수블스님은 “장학금이 앞으로 뜻있는 분들을 동참하게 하고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도움을 주어 한국 불교가 세계불교학 내에서 나름대로 위치를 찾게 하는 시급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하버드대학 교수 식당에서 미국불교를 가르치고 있는 크리스토퍼 퀸(Cristopher Queen) 교수와 중국불교 박사과정에 있는 알랜 와그너(Alan Wagner), 인도 수피즘과 이슬람 전공 블레인 아우에르(Blain Auer) 등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 내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과 미국불교 수행방법 그리고 수피즘 수행과 한국불교 수행방법을 주제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특히 수블스님이 선에 대해 직접 설명했으며, 철오스님은 비파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에 대한 차이를 설명했다.

제 9 회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성료

“세계평화 위해 三國불교도 힘 모으자”

‘인류공생에 기여하자’는 주제로 지난 10월 26~29일 일본 교토와 나라에서 열린 제 9 회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3국 대표단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고조된 동북아 긴장관계를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등 세계평화를 위한 3국 불교도들의 노력을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일본의 유서깊은 고도(古都)인 교토와 나라에서 열린 이번 제 9 회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는 학술강연회를 비롯해 세계평화기원법회, 환영만찬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등 3국 불교계의 돈독한 우호관계를 재확인했다. 내년 제 10 회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는 중국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학술강연회

첫날인 26일 오전 9시부터 교토 입정교성회관에서 열린 학술강연회는 ‘인류공생’이란 주제로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3국 불교계의 역할과 대안을 놓고 심도 있는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이념과 종교간 갈등으로 지구촌의 대립이 확산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3국 불교계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3국 불교계 대표들은 기초발제와 보충발표가 이어진 이날 학술강연회에서 3국 발표자들은 인류공생과 세계평화를 위해 불교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한국대표단의 기초발제를 맡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지원스님(조계종 사회부장)은 “3국 불교도는 일불제자로 진정한 인류평화를 위해, 종교가 갈등의 원인이 아닌 평화와 진리로 인도하는 길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면서 “지구촌 곳곳의 갈등의 원인을 종식시키기 위한 종교인들의 화해와 이해 증진을 위해 기도하고 정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중국불교대표단장겸 수석대표 셰청스님도 “충돌을 없애고 세계 화합을 이룩해 다같이 태평을 누리려면 지구촌 질서를 ‘대항’에서 ‘대화’로 바꿔야 한다”면서 “종교와 이념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국 불교계가 공동책임을 진다는 의지를 갖고 우호교류를 강화하고 공생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카무라코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회의장은 “세계의 종교, 특히 3국의 불교도가 하나가 되어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화합·공생·박애의 가르침을 인류가 귀의해야 하는 기본이념으로 삼을 것을 절실히 원한다”면서 “이번 대회와 교류를 통해 3국 불교도의 단결이 보다 강하고 깊어지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조발제문을 발표했다.

세계평화기원법회

26일 오전 교토 입정교성회에서 학술강연회를 마친 3국 대표단은 승용차와 버스를 이용해 나라로 이동한 뒤 법상종 본산인 약사사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거행했다. 화창한 가을 햇살이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세계평화기원법회는 일본이 중국에서 이운해 온 당나라 고승 현장법사의 분골이 봉안된 약사사 경내에 있는 ‘현장삼장원’에서 거행됐다. 20분씩 나라별로 전통에 맞는 의식으로 평화기원 불교의식을 진행하고,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서를 채택 발표했다. 이날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일본측을 대표해 나라 약사사 관주(菅主) 에이인 스님은 “전쟁의 무익함을 알면서 그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업”이라면서 “원한은 자비에 의해서만 그칠 수 있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3국 불교도와 세계인류는 명심해야 한다”고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영소우 스님도 “역사를 거울로 미래를 지향하며 3국 불교의 ‘황금유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면서 “아름답고 화목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지관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평화기원’을 통해 “진정으로 문명한 인류만이 인류의 문명을 지켜갈 수 있다”면서 “정법문명(正法文明)을 인류보편의 유산으로 확장시켜 지구촌과 인류공영에 이바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3국 불교대표들은 ‘3국 불교계의 황금유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결의했다. 공동선언문에서 3국 불교계는 “학술연구와 인재양성 그리고 정보교환과 상호 수행체험 등을 통해 3국이 쌓은 협조와 연대의 고리를 세계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은 노력을 통해 인류공생과 번영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평화기원법회가 열린 나라 약사사는 서기 680년 건립된 고찰로 국보로 지정된 동탑과 본당 약사삼존상, 약사여래좌대, 불족석(佛足石) 등 다양한 찬란한 불교문화를 간직한 도량이다. - 불교신문에서 발췌-

인도 불가촉민 ‘불교 개종’ 전국 확산

“계급차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 종교자유 억압하는 힌두이즘 견제책도

인도 불교계가 힌두교의 한 분파로 치부되는 등 정체성 위기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항의라도 하듯 인도전역에서 불가촉민(Dalits, 不可觸)들의 불교 개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인도 카르나타카주 굴바르가에서 1만 5000명의 불가촉민들이 불교로 개종했다는 인도 일간 ‘더 힌두’의 보도에 이어 영국 인디펜던트와 인도 PTI 통신도 지난 13일 불가촉민들의 잇따른 불교개종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들 언론을 종합하면 이달 들어 수천 명의 불가촉민들이 불교로 개종했으며, 올해 들어서만도 10만명 이상의 개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불가촉민들의 불교개종행렬이 지금 이뤄지는가.

무엇보다도 인도 독립 이후 국가가 신분에 따른 차별(카스트제도)을 법으로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힌두교 중심의 인도사회에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차별의 악습에 항의하기 위한 행동으로 관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최하층민인 불가촉민들은 여전히 화장실 청소부 등 비천한 직업을 천직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 실제로 이들 천민들을 만지기만 해도 오염된다는 생각에 마을 우물도 함께 사용할 수 없고 음식점의 그릇도 별도의 그릇을 사용하고 있는 정도. 따라서 이들 불가촉민들이 계급차별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계급차별이 없는 불교로 개종하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인 셈이다.

이와 함께 최근 힌두민족주의 정당인 인도국민당(BJP)이 불교를 힌두교의 하부종파로 정의하며 실질적인 종교개종을 금하는 ‘2006 종교자유 개정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정치적 항의 표시로 대규모 종교개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때마침 올해가 불가촉민 출신으로 신분차별 철폐운동을 주도하며 불교로 개종했던 초대 법무장관 B.R. 암베드카르의 사망 50주기인 것도 개종운동 확산의 주요동기가 되고 있다.

개종 집회는 지역사회의 반향을 일으키며 새로운 여론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지역 국제불교청년회장인 반테 보디담마 스님의 주도로 굴바르가에서 열린 개종집회에는 수천명의 신도들이 도시의 주요도로를 점거하며 평화행진을 벌였다. PTI 통신은 500 명이 넘는 스님들도 대형행렬에 함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열에 합류했다고 전했다. 지난 14 일 인도 동북부 나그푸르에서 열린 ‘세계 종교 자유의 날’ 행사에도 수십만명의 불가촉민들이 참석해 개종식이 진행되기도 했다.

불교개종 붐은 불가촉민에게만 해당되는 사항도 아니다. ‘더 힌두’는 지난 17 일자 신문에서 “인도 유명 인도여성 정치인인 마야와티 바후잔 사마즈당(BSP) 의장과 그녀의 지지자들이 지난 16 일 열린 당 설립 7주년 행사에서 스님에게 계를 받고 불교로 개종했다”고 보도했다. 불가촉민들의 대거 개종이 진행되고 여론 변화가능성이 보이자 정치인들의 행보에도 변화가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쉬리니바스 프라사드 인도 전 통합장관은 로이터와의 회견에서 “50 년전 암베드카르가 불교개종에 대해 ‘힌두교의 포기(renunciation)’로 묘사한 것처럼 불가촉민들은 몰인정한 악습에 대항해 불교개종을 통해 힌두교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단 개종의식을 주도한 사기아 폰누 두라이씨도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불가촉민들의 개종은 정치적 항의 표시”라고 말했다. 밀리카르준 카르제 카르나타카주의회 의장도 “불교는 세계평화를 이끌었고 사랑, 정직, 조화를 개인의 삶에 투영시킨다”며 “불교가 인도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불교신문에서 발췌 -

선시 감상:

그대 얼굴 가을달이여

편양언기(鞭羊彦機, 1581~1644)

그대 얼굴 가을달이여

그 빛은 누리 환히 비치네.

이 마음 물 깊이 자면

곳곳마다 그 푸른빛이리.

법회소식 NEWS

- 11 월 4 일 Washington University Bush Hall 에서 가을 선정의 날 (Mindfulness Day)을 기념하여 여성을 주제 (Women in Buddhism)로 법회가 열렸습니다. 현지인들이 약 250 여명 참여한 이날 행사는 세인트루이스 및 인근 사찰 지도자들의 모임인 St. Louis Buddhist Council Meeting 에서 주최를 하고 Washington University 가 스폰서로 Washington University 에서 장소제공으로 대학 강당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법회는 Tonen O'Connor 스님, Beata Grant 교수님, 그리고 불국사 주지스님인 Bhikkhuni 연암 선각 스님이 법문을 했습니다. 선각 스님은 법문에서 비구니 스님들 및 여성 불자들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 과 활동에 대해 피력하며, 사회나 승단에서 설사 남녀 차별이 있다 해도 그들 수행자 자신의 수행과 증생제도를 해야하는 책임에서는 남녀 차별이 없고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우리 불자들은 증생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그들이 힘들 어 도움의 손을 내밀었을 때 언제든지 손을 잡아주는 보살행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희망의 빛이되는 것이 즉 수행이고 깨달음의 길입니다. 성불 합시다.
- 매달 3 켄주 일요일은 “정진옥 박사님과 함께하는 교리 탐구” 시간 입니다. 교리 탐구 시간은 신도님들 모두가 참가하고 토론하는 장입니다. 부처님을 존경하므로 기쁘게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모두들 유익하고 좋은 시간들 가집시오.
- 강 석주 큰수님 기일을 맞이하여 11 월 14 일부터 12 월 6 일까지 불국사 주지 연암 선각 스님이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십니다. 한국에서 이 기간동안 스님은 불국사 후원회 법회 및 불국사 부지 마련을 위한 한 평 불사에 정진합니다. 스님이 한국에 계시는 동안 회장님과 총무님, 그리고 정진옥 교수님을 중심으로 일요 정기 법회에 임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 12 월 둘째주 일요일은 인등 기도의 날 입니다. 이날 세인트루이스에서 참선 정진하는 단체 중의 하나인 “The Buddha in the City” 참선 멤버들이 불국사 일요 정기 법회에 동참합니다. 불국사 신도님들은 이날 만나는 “The Buddha in the City”참선 멤버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따뜻한 말 한 마디라도 건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 12 월 22 일은 일년중 겨울이 가장 길다는 날인 동지입니다. 불국사 에서는 11 월 셋째주 일요일에 동지 기도 및 팔죽 공양을 합니다. 동지 기도에 많이들 참석 하셔서 맛있는 팔죽도 드시고 건강하게 겨울도 보내 집시오.

- 10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20 번 무오생 김정옥, 121 번 계미생 강예자, 150 번 무오생 이한상, 251 번 한선미, 252 번 이성재, 363 번 갑오생 길상주 임태훈, 364 번 을미생 문수행 광명희, 366 번 임술생 임영도, 367 번 기유생 이호상, 368 번 황혜연, 369 번 이성민, 370 번 이성우.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 켄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증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화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도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